

# 금호석유화학, 안전 작업장 만들기에 '올인' 화학제품 입고~출하 전 단계 모니터링 시스템



올 상반기 회의에서는 생산현장 밖 사무실이나 출·퇴근길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,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통한 관리·감독 체계화 등을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했다.

이올러 관리시스템 고도화와 더불어 관리 인력의 교육도 중요한 부분인 만큼 전 사업장 환경 안전팀을 중심으로 '안전지킴대화' 교육을 매주 시행하고 있다.

화학물질의 안전한 유통과 보관, 사용은 금호석유화학처럼 다양한 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.

금호석유화학은 2016년부터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존 관리시스템을 한층 강화한 KCMS(KKPC Chemical Management System)를 구축해 총체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.

금호석유화학의 합성고무와 합성수지 제품 원료인 부타디엔(BD), 스티아렌모노머(SM) 등 다양한 원·부자재들을 사업장에 들어오는 시점부터 철저한 심의 및 등록 절차를 거쳐 관리하는 시스템이다.

유사시에는 기술기획팀과 사업장별 환경안전팀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.

금호석유화학은 관련 법규의 지속적인 개정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의 사전 등록 및 취급시설 개선 등에서 선제적인 환경안전 활동을 펼치고 있다.

또 점차 환경안전 관련 규제와 가이드라인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전환경관리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.

금호석유화학은 차후 이를 그룹 차원으로 확대해 주요 화학계열사들의 공통 영역에 대한 각 계열사의 유기적인 협조를 가능케 하고, 상호 교육활동을 통한 회사 간 교류 활성화로 업무 시너지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금호석유화학은 2008년부터 CEO가 참여하는 '환경안전 통합회의'를 열고, 사업장별 환경안전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돌아보는 시간도 갖고 있다.

차후 엔지니어의 역량 강화를 위한 화학공학 실무 및 선진 안전관리 교육 프로그램으로 직원 교육 영역을 넓혀 나갈 예정이다.

한편 금호석유화학그룹에서 유연탄 등의 항만 하역, 보관 및 육상 운송을 담당하는 금호티앤엘은 다량의 가연성 물질을 관리하는 만큼 다른 계열사에 비해 화재 사고에 더욱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.

금호티앤엘은 매월 안전보건교육을 하는데, 이때는 전 임직원이 소방시설 작동방법 등에 대한 이론과 현장 교육을 병행하는 소방안전교육과 매 분기 화재위험지역을 설정해 진행하는 소방 모의훈련에 참여한다.

이 같은 사후대처 능력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화재 예방이다. 금호티앤엘은 24시간 현장순찰 요원 운영제도를 시행 중이다.

폴리우레탄 원료인 MDI를 생산하는 금호미쓰이화학은 올 6월 환경부가 주관하는 '녹색기업 대상 시상식'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.

금호미쓰이화학은 이번 수상으로 공정 설비의 개선 및 신규 시스템 도입을 통해 증기 및 전력 사용량을 낮춰 온실가스를 줄이고, 포름알린 등 환경 유해성분을 대체할 수 있는 자사 제품의 친환경 특성을 강화한 점을 인정받은 만큼 관련 연구 역량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. ❶